



"비 유어셀프(Be Yourself)"를 꿈꾸던 어린 시절을 책으로 옮겨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기쁘게 한 74살의 토베 안손 핀란드가 낳은 아름다운 작가는 2001년 6월 27일 사망했다.
 그리고 2014년, 그녀는 100주년 탄생기념으로 환생하였다.

토베 안손 탄생 100주년 동글동글 '무민트롤' 세계가 반한 핀란드 동화

이희숙 디자이너 · 저널리스트 leeheesook@hotmail.com



핀란드 작가 토베 안손이 만들어낸 캐릭터 '무민'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아니며, 두루뭉수리한 몸에 두 눈만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무민동화는 전 세계에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동화의 무대인 핀란드에는 무민월드와 무민박물관이 세워져 있고, 해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2014년은 안손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위해 핀란드 헬싱키의 아테네움(Ateneum) 국립미술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토베 마리카 안손(Tove Marika Jansson)은 1914년 8월 9일 헬싱키에서 예술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어머니와 조각가 아버지의 맏딸로 태어났다. 1918년 핀란드 내전으로 전선에 있던 아버지는 아내에게 "우리 토베는 위대한, 정말로 큰 예술가가 될 거야"라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현실로 되었다.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는 동화

토베 안손은 스톡홀름과 헬싱키에서 예술을 공부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여행은 그녀의 시각 예술에 독특하면서도 전통을 의식하는 영감을 제공했다.

1930년 즈음 안손은 페인팅과 삽화를 그렸고, 15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개방 성격의 풍자 잡지 '가름(Garm)'에 투고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속 핀란드의 현실과는 거리를 두며, 미친 자가 통치하는 세계를 큰 코를 지닌 모습으로 조소했다. 이것이 훗날 무민트롤로 알려지기도 했다. 1944년 헬싱키에 대량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안손은 헬싱키 중심가의 스튜디오에서 첫 책 '무민트롤'을 완성했다.

안손의 '무민들과 대홍수(The Moomins and the Great Flood)'(1945) 시리즈에서는 무민트롤이 무민 계곡에서 무민들과 다른 모습의 혼합 가족으로 그려졌다. 이 설화는 깨끗한 그래픽 선으로 생동감 넘치게 묘사됐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설화를 단순히 어린이 이야기로 간주치 않고 생철학으로 바라봤다.

독자들은 동정심 많은 무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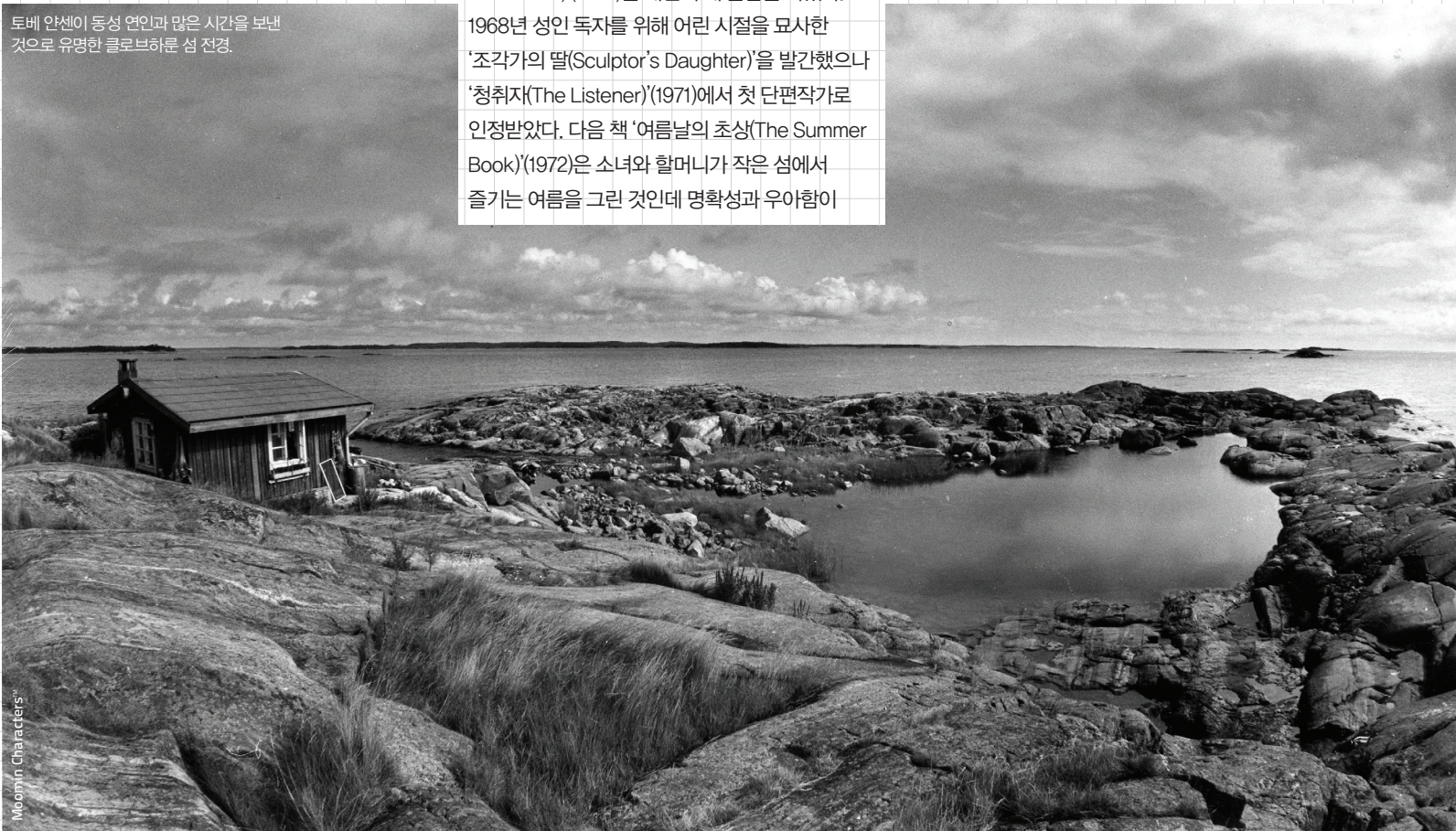
첫 무민 책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무민트롤 가족(Finn Family Moomintroll)'(1948)이 나왔을 때 안손의 평판은 핀란드와 스웨덴 국경을 넘어섰다. 1950년 초, 그녀는 직접 쓰고 그린 무민 연재만화를 영국 런던의 이브닝뉴스 석간지에 실기로 유통 계약을 맺었다. 이 만화들은 20개 국에서 읽혔다. 안손의 책과 만화가 성공하면서 무민들은 전 세계의 TV, 영화, 연극, 오페라에 나타났다. 이후 무민 책들은 전 세계 40개 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시각 예술가로서 안손은 종종 새로운 시도를 했다. 페인팅 외에도 그래픽 프린트, 벽화와 모자이크의 공공작품을 만들었다. 열린 마음과 자유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안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 노트에서 그녀는 예술과 생에 관해 전통성을 질문하고 새로운 수평을 찾는 데 숙고했다. 한편 작가로서 안손은 무민의 성공이 그녀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안손은 '무민계곡의 11월(Moomin Valley in November)'(1970)을 내면서 새 출발을 하였다. 1968년 성인 독자를 위해 어린 시절을 묘사한 '조각가의 딸(Sculptor's Daughter)'을 발간했으나 '청취자(The Listener)'(1971)에서 첫 단편집가로 인정받았다. 다음 책 '여름날의 초상(The Summer Book)'(1972)은 소녀와 할머니가 작은 섬에서 즐기는 여름을 그린 것인데 명확성과 우아함이

돋보인다. '사기꾼(True Deceiver)'(1982)은 권력, 속임수, 거짓말 묘사로 독자들을 놀라게 했다. 마지막은 1998년 안손이 84세 때 쓴 '편지(Viesti)' 단편집으로, 영어로는 번역되지 않았다. 헬싱키 스튜디오는 안손이 창작열을 불태우는 장소로 부족함이 없었으나 실제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섬에 매혹돼 여름을 주로 핀란드 해안의 조그만 클로브하룬(Klovharun)에서 보냈다. 그녀의 잦은 외국 여행에는 생의 파트너이자 그래픽 예술가이며 대학교수인 툴리키 피에틸라(Tuulikki Pietila, 1917~2009, 애칭은 투티)가 함께했다. 시각 예술과 문학에 참여한 안손은 풍부한 생을 즐기며, 그녀 아버지가 예측한 '정말로 큰' 인물이 되었다. 안손은 섬세하고 감동을 주는 스타일, 끊임없는 창작열로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다. 그녀의 작품은 여러 예술 형태로 펼쳐졌으며, 어떤 경계선도 용납지 않았다. 즉 그녀에게 예술과 생, 일과 사랑은 하나였다. 1988년 토베 안손과의 생전 인터뷰로 그녀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좀 더 알아본다.

토베 안센이 동성 연인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유명한 클로브하룬 섬 전경.



Moomin Characters™

우리의 생은 하나의 무지개입니다

1988년 겨울, 무민트롤의 창조자 토베 안손은 조용한 모습이었으나 정열에 불타는 눈으로 자신의 작업실로 안내했다. 헬싱키 중심가에서 택시로 5분 정도 떨어진 지역,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옥상의 아름다운 방에는 아침 햇살이 여러 창으로 덮인 천장으로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 이후 재건축된 이 방에는 조각가 아버지가 만든 딸의 조각상과 함께 무민트롤과 많은 책으로 장식돼 있었다. 그녀는 미리 차갑게 해 둔 백포도주를 정성껏 대접하면서 옆방의 안락한 소파에 자리를 권했다.

어린 동화작가이자 화가로서 스칸디나비아,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행복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학창 시절은 정말 싫었죠. 예술가이던 부모님은 특이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띠는 보헤미안이자 동시에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딴 작은 섬의 피싱룸(fishing room)이라 불린 거실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두 남동생과 함께 바닷가의 갈매기와 파도를 보면서 살았죠. 어린 시절은 삶에서 자기 자신을 성립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가족이 예술가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바다 풍경에서 영감이 온 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을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년기는 제 인생의 휴식처이며, 필요에 따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도피처라고요.

작품에 낭만, 창조, 자연 관련 주제가 많은데 그런 영감은 환경에서 오는 건가요.

글쎄요. 독자들이 책을 읽는 것은 청중이 강의를 듣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이기심으로 낭만성 짙은 글을 썼지만 독자들을 생각해서 마지막을 늘 해피엔딩으로 끝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줄거리가 명예스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물론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으나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민트롤을 쓰면서 느낀 점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어른이 되면 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생은 하나의 무지개입니다.

핀란드의 자연 속에서 무엇을 얻는지요.



토베 안손의 초상화.

많은 것을 얻습니다.(그러면서 그녀는 필자의 눈을 흥분된 얼굴로 응시한다) 아름다운 육지에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바다 풍경을 그리며 바다와 함께 사는 것이 생의 보람입니다. 바다를 동행하는 선원이 아니더라도 폭풍을 지켜보는 관람자로서... 이희숙 씨는 바다를 보면서 무엇을 얻는가요?

바다를 보면서 생은 하나의 수평선이고 큰 덩어리이며,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의 균형과 전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잠재의식에서 온 것이겠지요.

저 역시 동감합니다. 저는 바다를 보면서 인생의 수평과 전체를 느끼고, 나를 감동시키는 파도를 보면서 항상 움직이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일치한다니 오래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음악을 좋아하세요?

무척.(안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비워진 잔에 와인을 채우고 난 뒤 담배를 권하면서 자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떤 음악이죠?

클래식, 심포니에서 하이재즈, 뉴올리언스풍 음악들이예요.

좋아하는 이유는? 리듬이나 분위인가요?

음악을 듣는 것은 작품 때문이 아니라 생활 일부로 듣습니다. 특히 바흐 음악은 저에게 큰 의미를 주죠. 음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 것은 여자 친구 투티입니다.(안손은 예술가 투티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 관계는 정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외로울 때나 두려울 때가 있었나요?

전쟁 중이던 1940~1950년의 어느 10월 저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바깥 날씨는 항상 어둡고 우중충했으며, 제가 살던 이곳의 창문은 모두 까맣게만 보였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달린 저 마지막 창문을 보며 뛰쳐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걸려 있던 거울을 전부 뒤로 돌려 세워서 저의 외로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름답고도 절박한 외로움이었네요.

또 바닷가의 오두막집에 살곤 했는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꿈을 꾸었는지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집에 걸려 있던 벽시계인저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워서 시계 종소리일까 바랄까, 아니면 귀신이 아닐까 하고 숨죽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그녀의 무서운 표정에 우리는 크게 웃었다)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바깥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큰바람이 일고 있었고, 컴컴한 밤이었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온 섬을 비추는 등댓불이었는데 30마일이나 떨어진 그 불빛이 저의 오두막집에 비친 것입니다. 그 불빛은 저의 외로움, 두려움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36가지의 행복한 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 100가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는 화가이며 작가입니다. 초상화를 그렸는데

어머니가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한 인간의 참모습을 그렸습니다. 초상화를 왜 그리는가 몰랐더니 그린 그림이 생애 큰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신을 믿으시나요? 동양의 윤회설은 아시나요?

윤회설을 믿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인간이 다시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면 무언가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즐겁지 않겠어요? 친구 투티의 부모는 그것을 믿습니다. 종교와 관련해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즐거워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정말로 멋있죠. 어머니가 무슨 책임인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야 성경인 줄 알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랍 이야기는 자주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신을 믿고 믿지 않고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무언가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생하면 자유롭게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는 이사도라 던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발레리나를 절실히 원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혼은 살아 세상을 배회한다고 생각하고, 윤회설을 믿습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혼은 저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인간으로 계속 태어나 부모와 친구를 다시 만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고,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웃음)

동양에서는 가족에 의미를 둡니다. 결혼은?

결혼한 적도, 자식을 가져 본 적도 없습니다. 여자 친구인 투티와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동양 전통이 저에게는 오히려 이상합니다.

의견이 같군요. 참, 안손 씨의 생의 행복과 인생관은요?

나 자신에게 항상 묻지만 저의 지식, 즐거운 경험, 철학 등을 책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릴케와 워즈워스와 하이네의 시를 읽고,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비록 못 만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느끼며 바닷가를 거닐 때 저는 행복합니다. 희망을 품고 아이디어를 계속 창조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울 때 수영을 하며, 그 속에서 움직임의 보고 영감을 찾습니다.

저도 수영을 좋아하며 거기서 꿈을 꾁니다. 육지에서 균형을 느끼듯 파도의 움직임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작품에 몰두할 것입니다. 여러 해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고 일을 시작하는 편이죠.

꼭 예술가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물론이죠. 제 부모가 구두수선장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떤 연유로 무민트롤을 쓰게 되었죠. 왜 무미라고 불렀나요?

핀란드의 두 번째 큰 도시인 탐페레에는 무민트롤의 어린이 전시관이 있습니다. 무민 대신 미세스 빌리 존스나 스웨덴에 흔히 있는 이름인 블롬크비스트로 부를 수 있는데 어머니를 짧게 하다 보니 무미가 된 것 같군요. 스칸디나비아에는 트롤 전설이 있습니다. 트롤은 숲 속에 살면서 인간을 해치는 위험한 동물로 생각해 왔지만 저는 그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즐겁고 안전한 동물로 바꿔서 인간 세상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토베 안손은 바다를 좋아했으며, 바다 풍경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작품에 만족하시나요?

완전한 만족은 없죠. 더 잘 쓸 것을 생각하지만 쓴 것에 감사하며 추억으로 저장합니다. 저를 이해하겠어요?(그녀는 또 담배를 피우면서 반쯤 남은 와인을 마셨다)

인터뷰 신청에 놀라셨죠?

한국에서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세요?

책에서 얻은 지식 외에는 거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인내심이 많고 의식이 용감한 여자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의사나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독립심과 자유의지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고르는 개인 권리와 자신을 믿고 희망으로 저장하는 인내심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죠.

저의 책에서 항상 추구하던 자기정체성으로 '스스로 행동하라(Be Yourself)'입니다. 그러나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안손은 1년에 3000통의 편지를 세계 곳곳에서 받으며, 일일이 답장을 쓴다. 인터뷰를 거의 사양하는 그녀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쁜 마음으로 필자와 동반한 노르웨이 예술가를 식사에 초대하였다. 한겨울의 토요일 저녁, 헬싱키 시내 에스플라나디 공원에 위치한 식당은 그곳에 우뚝 선 독특한 목재 건물의 카펠리 레스토랑이었다. 특별히 구석에 마련된 낭만이 어린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 잠시 잊고 각자의 상념에 잠겼다. 바깥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대륙성 바람으로 무척 추웠지만 아름다운 석양의 거리에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연미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실내에 음악이 흐르자 그녀는 같은 여성인 나에게 춤을 권했다. 사고방식이 한국 전통인 나는 깜짝 놀라 같은 여성끼리 춤출 수 없음을 정중히 전달했다. 안손은 “나는 강강 춤을 못해요”라며 자신이 즐기는 춤을 추었다. 보드카 몇 잔에 취해 춤추는 유명인의 모습에 주위 젊은이들이 손뼉으로 흥을 돋웠다. ❶